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입문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의 봉사

주간충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3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회 선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순진

'98 청지기훈련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변하는 인정된 일꾼

강사는 김성관 목사 및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교 교수들
전 제직 및 봉사자 대상으로 2월 2일부터 5일까지

다 음달 초인 2월 2일부터 5일까지 우리 교회 본당에서는 '98 청지기(제직 및 일꾼)훈련이 거행된다. 금번 청지기훈련은 예년과는 달리 2월 저녁부터 5일 저녁까지 매일 아침 10시부터 저녁10시까지 12시간을 강행군하는 연속강의로 진행된다. 교회의 모든 제직과 봉사자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시켜 성령으로 충만한 일꾼, 복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는 목사의 말씀에 따라, 훈련대상에 해당하는 목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권찰 및 각 부서의 봉사자들, 곧 위원회와 교구일꾼, 교사, 찬양대원, 장전도회 회원, 양육부원, 교회직원, 청년대학부 임원, 차장관리부원 등뿐 아니라, 강의를 듣고자 하는 평신도들은 이번 청지기훈련이 말씀 위에 확고히 서

서 1998년도를 힘있게 일어서게 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성경연구원 및 실무자들은 영적 통찰력과 견고한 말씀이해를 통해 원 이번 청지기훈련을 통해서, 훈련의 모든 일꾼들이 말씀위에 더욱 굳게 서서 복음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모든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점심 및 저녁식사는 교회에서 제공한다.

경로심방, 1월 20일부터 시작

교회 안의 75세 이상되신 분들을 위한 경로심방이 이번 1월 20일부터 각 교구 구역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실시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 평강을 베푸는 기도와 선물을 들고서 방문하는 교구 구역자들의 발걸음 통해서 심방을 받는 모든 분들이 큰 격려와 하늘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뜨거운 새벽 교구에서 일어나는 새벽기도운동 나라와 교회를 위한 간절한 외침

교구장과 교구 구역교사, 그리고 교구일꾼들의 긴밀한 협력과 섬김을 통해서 훈련의 새벽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1월 5일 시작되어 23일까지 계속된 이번 새벽기도운동은 위기에 처한 나라와 교회의 영적 갱신과 부흥을 목표로 하여 시작되었는데, 성도들의 열심있는 참여를 통하여 연일 2천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꾸준히 모여 기도에 힘쓰고 있다.

교회에서 가까운 교구(1-7교구) 식구들은 매일, 그리고 원거리 교구식구

말씀과 기도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찬탄하 받게 되는 것이 교구 구역자들의 간절한 바람이다. 뿐만 아니라, 교구 구역자들은 그동안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해 왔던 성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벽기도의 기쁨과 은총을 경험함으로써, 23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훈련의 새벽이 뜨겁게 살아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한편, 현재 새벽기도단은 김성관 담임목사의 배드로후서 강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2월 2일(월)	2월 3일(화)	2월 4일(수)	2월 5일(목)
오전 10-12시		Longman	George Fuller	Pete Enns
오후 1-4시		Longman	George Fuller	Pete Enns
오후 7-8시	개강예배 김성관 목사	Longman	(1-3시) 수요예배	Pete Enns
오후 8-10시	Longman		Pete Enns	

주간충헌 격주간 영어판 발간

교회는 <주간충헌>과는 달리 격주간 영어판(The Biweekly Choong Hyun)을 발간하고 있다. 지난 1월 4일 창간호를 냈다.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면서 오는 미흡한 점이 몇몇 있었지만, 이 격주간 영어판은 한달에 2회 발간하며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되면서 젊은이들 및 전도와 선교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판에 관심있는 분들의 관심과 기도, 그리고 기고물도 발간에 있어서 교회의 목회적 방향에 맞추어 '청년과 선교' 부분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성도들의 다양한 신앙경험과 간증들을 싣고, 특히 각 교구와 부서들에서 추천받은 통신원들을 통해서 교회 구석구석의 소식들을 알리는 일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그리고 보다 풍부한 내용을 쓰기 위해 8면으로 증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교역자 인사

그동안 고등부를 지도해오던 이국명 목사(1월 31일 부로 사임하였으되, 이에 따라 5교구 지도 조문환 목사가 고등부 지도를 겸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학부와 19교구를 지도하던 안순수 목사는 9교구 지도로, 9교구를 지도하던 김동하 목사는 대학부와 19교구 지도로 각각 임명되었다. 한편 우리 교회는 박양덕 성도(1938. 4. 14생)를 전도위원회 소속 교정전도와 전도사로 임명하여, 교회직원 차원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였다. 박양덕 전도사는 1970년 충현교회에 등록한 이후 갈빈신학교를 졸업(1980)하고, 1978년도부터는 본적지로 전국 각지의 소년원과 유치장, 교도소 등의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일에 집중해 왔으며, 이에 따라 1989년에는 중앙일보와 법무부에서 주최한 제1회 보호소년대상 본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선교위원회 수단 선교담당사자

선교위원회의 수단 선교담당사(노광현 장로, 이승훈 목사, 하대선 장로, 김춘근 장로)는 지난해 말인 12월 22일 서훈을 떠나 9박 1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2월 31일 귀국했다. 담당사는 주로 김영대 선교사의 수단 선교사역현황을 돌아보고, 그 지역에 대한 충현교회의 선교현황과 전망을 파악하는 것에 주력했다(4면면 선교보고). 케냐 담당사 이어진 이번 수단 담당사를 통해서 아프리카를 향한 선교적 열정이 충현교회에서,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불길같이 일어날 것임을 기대한다.

1월 18일은 선교주일 주일예배서 선교헌금작정

다음주일(18일)은 선교주일이다. 선교주일을 맞아 교회에서는 주일예배에서 선교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각 교회학교에서는 선교사들에게 편지보내기 등을 실시한다. 한편, 선교위원회에서는 선교헌금뿐 아니라,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선교적 열정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시도되기를, 특히 젊은이들을 필두로 하여서 각 교회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선교에 대한 관심과 참여들이 구체적으로 시작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도위원회 영성훈련

- 일시: 1월 18, 25일, 2월 1, 8일
장소: 주일 오후 3-4시
- 강사: 갈릴릴루
- 말씀운동(박경현 목사)
기도운동(이홍성 목사)
교회사랑운동(김희수 목사)
전도운동(김필수 목사)
- 대상: 교구별 남녀전도와 임직원 및 직능전도의 임직원과 수장을 원하는 평신도

① 김창인 목사의 이사야서 강해 ①

천국 왕의 기호

(이사야 11:10-16)

‘기’란 것입니다. 기발은 어느 단계나 국가의 주권(존재와 자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 천국 왕이 나타나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12절)
멀지 않은 장래에 예수님의 기발이 온 천지에 휘날리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천국의 왕 예수님께서 흰 옷을 입고 뱀파를 타고 나팔을 불며 재림하실 때에 땅에는 큰 잔치가 나며 해가 총갈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갈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선 파실이 떨어지는 것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죽이 말리는 것같이 떠나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땅 위에서 인간의 모든 활동이 끝나는 때입니다. 전쟁도 끝나고 사람들이 서로 소생한 것도 끝나고 장사하던 것도 지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끝나고 공부하는 것도 끝나고 인간의 모든 것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범죄한 자에게는 자유가 끝나게 되는 무서운 때입니다.

2. 천국 왕의 기발이 서는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짜를 계산하여 발표한 사람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또한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하실 날짜는 알 수 없으나 재림하실 시기는 분명히 말씀하신 범위 안에서 그 징조들을 보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몇 가지 징조를 간단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할 수 있도록 교통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세계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게 되고 하였습니

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세계를 바빠 다닙니다. 무슨에서 한나절 일하든 잠시 쉬든 또 일을 좀 하고도 저녁 때를 밥하면서 서울에 와서 잘 수 있습니다. 비행기로 미국까지 16시간이내 날이 갑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닙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빠르게 대항하는 때가 말세라고 했습니다.

둘째,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인간의 도덕생활이 극도로 타락하게 되고 있었습니까(딤후 3:1-9). 지금 얼마나 윤택합니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자들이 망치스러운 것을 하는 시대입니다. 오

늘날 이 지구상에는 상상도 못할 유품이 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끝이 다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는 인류의 2/3가 일시에 죽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

3. 천국 왕의 기발이 서는 날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1)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 그날에 주께서 다시 온 파사 그 남은 백성을 ... 성령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10, 11절)

“그의 남이 있는 백성을 위하여 앗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애굽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16절)

천국 왕의 기발이 서는 날은 남은 자들에게는 행복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기쁨으로 마중 나갈 자는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남은 자는 하나님만 믿는 자들입니다. 물질도, 자신의 몸이나, 재주도 믿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믿지 않고 우상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자는 자입니다. 남은 자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천존하는 하나님, 우주를 섭리하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둘째, 남은 자는 하나님만 두려워 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세력이 많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육신은 죽어도 영혼을 지옥에 보낼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그를 지키시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싶어도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만 무서워하는 자는 회개를 철저히 하십시오. 또 죄와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오노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주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합니다.

셋째, 남은 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대로 헌신합니다. 헌신이란 육신에 떠난 봉사요 명령대로의 봉사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들의 생활입니다.

(2) 돌아온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① 영화로운 예수님 앞에 모이게 됩니

머지 않은 장래에 예수님의 기발이 온 천지에 휘날리며 재림하실 때 기쁨으로 마중 나갈 자는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란 첫째, 하나님만 믿는 자들입니다. 둘째, 남은 자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고 지식이 많은 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대로 헌신합니다.



니다(10절).

예수님의 기발이 천지 사이에 날릴 때에 남은 자들은 주님의 기발 아래로 다 모여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 영광이 어떠한지 인간의 말과 글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영광을 인간의 말과 글로 표현해 보려는 시도 자체가 벌써 타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남은 자들이 어떻게 모일까요? 남은 자들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일시에 다 모으실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앗수르에 있거나 애굽에 있거나 다 돌아오게 하여 일시에 모으신다고 하였습니

다(11, 12절)
② 투기가 없게 됩니다(13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에브라임과 유다가 싸우던 것이 없어지고 모두 화목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계에는 교파와 교단 간에 싸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투기가 없습니다. 민족과 국가 간의 싸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한 곳에 모입니다.

(3)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원수들은 예수님의 기발이 날리는 것을 보면 “산아 바위와 내 위에 무너져 나를 좀 가리워도 나자 저 십자가 예수님의 얼굴을 정말 볼 수가 없구나” 이리면서 스스로 자옥으로 뿔뿔음쳐 들어 갈 것입니다.

천국 왕의 기발은 남은 자들에게는 기쁨을 주지만 십자가의 원수들에게는 공포에 떨게도 합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 중에 한편이 요새를 점령하여 자기네 기발을 높은 고지에 꽂으면 한편은 승리했다고 기뻐 하지만 다른 한편은 탄식하며 도주하는 지 포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산과 바위에 자기기를 좀 가리워 달라고 할 사람들이 누구일

니까? 첫째로, 몰라서 못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몰라서 믿지 못하던 자들이 산과 바위에서 자신을 가리워 달라고 할 것입니다. 둘째로, 알고도 믿지 않고 거역한 자들입니다. 셋째로, 의인을 핍박하던 자들입니다. 바로 믿고 바로 살기를 원하는 의인을 괴롭히던 자들이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몰라서 못 믿는 사람까지 지옥에 간다는 것은 너무 억울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리를 계속 보여 주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매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뢰소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 주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일만계시로써 우리에게 보여 주는 교과서입니다.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합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은 남보다 잘난 것이나 의로운 것이 없는데도 우리에게 타락히 삼위 하나님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가 됩니다. 머지 않은 장래에 예수님의 기발이 천지 사이에 날리게 됩니다. 이 기발이 날리는 날에 열광하는 웃음의 꽃이 피고 다라에는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할렐루야”의 기발이 날리는 날에 “산아, 야단갸나”라고 비명을 지르는 자가 된다 큰 일입니다.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만 믿는 자이고 하나님만 무서워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헌신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 가운데 들어가기 바랍니다.

● 김성관 목사의 다음주일 설교 ●



보배로운 산돌

(베드로전서 2:4-12)

‘산 돌’이 무엇일까요? 이 말이 우리에게는 어색하게 들릴 수 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께의 은총을 힘입어 세상에서 책임을 감당하고, 또한 여기에 필요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을 이 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전에 베드로는 어부였고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베드로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던 일, 예수님 처럼 물위를 걸었던 일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베드로에게 ‘산돌’의 개념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과 백을 일으키면, 우리는 베드로가 산돌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방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5-18). 예수님은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하였고 그 반석 위에 주님의 사역이 전개될 것이라 축복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받은 이 계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이며,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사신은 이 강하고 직접적인 계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2장 서두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인 것이 필요한 이원아이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절에서는 어조를 갑자기 바꾸어 그리스도인들을 어린아이가 아니라 반석으로 묘사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이상한 듯 보일지라도 사실 그것이 베드로의 스타일입니다. 그는 되도록 빨리 본론에 이르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을 ‘산돌’로 묘사하고자 한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는, “사람들에게는 버린바 되었고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야”(4:1)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로 묘사합니다. 이 특별한 돌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을 뿐 아니라 보배로운 돌입니다. 그러나 이 돌이 사람들에게 버려진 바가 되었습니까. 그들은 이 돌을 하나님께의 은혜로 보지 못하고 단순히 돌로만 보았습니까. 그것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은혜에 가서 여러분의 이름

으로 입금되어 있는 백만 달러를 찾아서 가져라고 말하는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은행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 여러분에게 은행 근처에 위치한 돌에게 가서 백만 달러를 요구하라고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돌에는 상식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이는 그런 말을 하는 자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만이 요청을 할 것이며 진정한 믿음을 가진 더욱 소수의 사람들만이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너희도 산돌 같이 될지라도”(5절)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가 될지라도”(5절)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또한 산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전으로 지어지고 있으며 거룩한 제사장의 일부가 되어가고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리라”(7절)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7-8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건축자들은 다름 아닌 제사장들이요 말씀은 가르치는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값으로 파질 수 없는 메시아의 가치를 다른 누구보다도 더욱 잘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까닭에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산돌이 되게끔 하지만 불신앙과 불순종은 죽은 돌덩이가 되게끔 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상의 진정한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선전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맛보고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탄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벧전 3:18). 예수님은 완전히 흠이 없으셨으나, 세상 죄를 지심으로 스스로 가장 더러운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돌이니 사람이 이 돌을 막으면 영생 하리라 나의 줄 끊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고 말씀하셨습니다(요 6:51). 유대인들은 이 말을 책망하여 예수님의 말을 막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으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라는 말이었습니다(요 6:53-54).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실로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참된 의미는 그리스도인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먹고 삽니다. 그분의 삶은 살아있는 떡이요 우리에게 영생을 제공합니다. 주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잘못된 행동들로부터 깨끗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켜 줍니다. 우리는 살기 위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없다면 우리는 죽습니다.

산돌이 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돌이 된 자들에게 베드로는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합하여지게 됨에 따라 우리는 거룩한 제사가 되며, 불로 쓴 곳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섬기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주님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서 전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계속하여 세우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산돌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머릿돌이 되게 하여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의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산돌이 된 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산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

하나님을 위한 산돌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머릿돌이 되게 하여야만 합니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의 모습입니다. 구약의 성도들과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단에 직접 나갈 수 있습니다. 회개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제사입니다. 베드로는 이 산돌이 교회로 지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모습을 이야기하여 28장 16절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바요나 한 돌을 시몬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금절하게 되리니”(11-12절).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예수살렘에 두신 기초 돌이십니다.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 실망하거나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귀중한 기초 돌이십니다. 주님 위에 우리가 건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없이는 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머리입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여러분의 몸에 속한 것과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해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구상하신 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과 우리를 접속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기적이며 우리들을 위한 큰 축복인 것입니다.

불라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라 하심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9절). 예수 안에 있는 주님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산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우리는 주의 은혜와 평안을 선전하는 일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나도 전에는 구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구혼을 얻은 자니라”(10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은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 주의 택하신 백성의 일부가 되며 주님의 의용과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는 자들이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권세를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너희를 악행이라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하시는 날에 너희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라 함이라”(11-12절).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방인으로 봅니다. 사탄은 이점을 이용하여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찌꺼기 미혹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들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이러한 욕망을 멀리하라고 경고합니다.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웃, 친구, 동료, 그리고 심지어 우리와 만나는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에게로 체험 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세

아프리카의 제일 큰 나라 수단

※ 선교의 황무지 수단을 가다 (1) ※

가나안 땅 탐지하러간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출발

하 대선
(장로, 행정위원장)



▲ 일행은 신학연정과정 수료예배에 참석하여 수료자들을 축하하였다. 이들이 수단, 더 나아가 아프리카 선교의 책임있는 일꾼으로 사용되기를 기도하며...

오래 전부터 예정되었던 출장이기는 하였지만, IMF 한파가 휘몰아치기 시작한 97년 12월 22일 김포공항을 떠나러 하는 우리의 마음은 그날의 하늘처럼 맑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상 명령이며 우리 교회의 중점 사업인 세계 선교를 위하여 아프리카의 심장부에 위치한 수단의 선교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선교 전략을 위한 현지 정탐을 수행할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수단 선교 현지 답사팀 일행(이승록 목사, 노광현 · 김준진 · 하대선 장로) 4명은 온 교회의 기도의 힘을 강하게 느끼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간 여호수아와 갈렙의 심정으로 출국 수속

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발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촉한 저희를 돌보아 주심을 느끼게 하는 고마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카이로행 KE 951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난데없이 구내 방송으로 호출을 하기에 가보니 모닝칼(Morning Calm) 회합이라고 탐승권을 비즈니스급으로 한 등급 올려서 바꿔 주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16시간에 걸친 장거리 여행을 아주 편하게 지내고, 23일 아침 5시(시차 - 7시간)에 무사히 카이로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카이로공항에 나와, 기타러 주신 이준교 선교사님의 따뜻한 영접을 받으며 일단 숙소에서 여장을 풀 우리는 때마침 카이로에 와 계시던 하요셉 평신도선교사님(알렉산드리아에서 사역중)을 만나 이준교 선교사님의 안내로 잠시 민속촌을 돌아보면서 알렉산드리아 선교 활동에 관한 현황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98년 1월부터 2개월간에 걸쳐 원 주된 20명에 대한 재자 훈련을 계획하는 등 열성적인 선교사님의 사역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준교 선교사님께서는 정성어린 제



▲ 사회전화를 걸기 위해 우체국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

녁식사 대접을 받은 우리는 일찌감치 공항에 나가 까다로운 출국 수속을 밟은 뒤, 24일 새벽 1시 5분발 KQ321편 항공기로 최종목적지인 수단을 향하여 출발, 2시간 40분 후인 3시 45분에 드디어 수단의 카르툼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한 시간에 걸친 복잡한 입국 수속을 거쳐 4시 50분에는 겨우 새벽부터 나와 기다리시던 김영대 선교사님과 감격의 상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숙소에 여장을 풀고는 곧바로 김영대 선교사님에게 가서 아침식사를 대접 받으면서 이곳 체제 기간 중의 답사 계획에 대하여 의논한 후 첫날 일정에 따라 먼저 주수단 한국대사관으로 가서 장세문 대사를 만나 잠시 만남을 나누고는 다음 예정지인 한·수 직업훈련학교를 방문하여 배리(Barri) 원장으로부터 개황 설명을 들은 후 학교 시설과 교육 현황 등을 돌아보았습니다. (계속)

김영대 수단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수단 선교담당사님이 귀국길에 오른 직후 김영대 선교사님이 말라리아에 걸려 병원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주님의 은총 가운데 빨리 회복되어 힘있는 사역을 계속 펼칠 나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수단의 복음화를 위하여

1. 수단에서는 교회와 고통 가운데 성장해 왔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회교에 대한 반대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명목상의 기독교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성령의 진정한 역사로 보여진다. 기독교인들이 인종간의 분열을 뛰어넘어 사랑과 관심을 보이도록 기도하자.

2. 남부지역 사람들과 온건한 회교도들의 고통은 외부 세계에 별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엄청난 폭력 사태가 벌어지는 지역으로부터 외국인들이 추방되었기 때문이다. 세계 지도자들이 수단 정부를 설득하여 정책을 바꾸도록, 그리고 전체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자.

3. 핍박과 박해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변 지역과 숲속에 피난해 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만 전해지는 구호품은 거의 없다. 종도병으로 인한 전례가 필요하지만 이용할 수 있는 약도한 거의 없다. 외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물질들이 채워지도록 기도하자.

이집트에서 제일 큰 나라, 영토의 절반이 나일강의 종류 및 상류의 분지이며 홍해와 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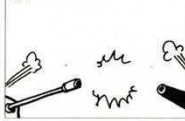
수단은 키르클리아 공용어는 아랍어를 쓴다.



1965년 이후 150만명이 전쟁과 학살 기근으로 사망하고 520만명이 국내의 난민으로 살고 있다.



1999-1996년까지 이집트와 영국의 지배를 받았고 1959-1972년까지 북부 아랍인과 남부 반리주자들의 간의 전쟁이 일어났다.



1983년에는 회교 극단주의자들이 모든 국민에게 회교편을 강요하였다.



1972년의 평화조약과 기독교인(1994)과 전통주의의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1969년 회교국가로 선포되었다.



회교도들은 기독교인들을 반대자로 몰아 붙여 감금으로 제압했다.



교회에 대한 핍박이 지난 40년간 있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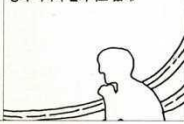
주인 예배에 폭탄을 던지고 기독교인 마을을 파괴하며



심지어는 많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까지 했다.



그러나 교회회는 그들 속에 더욱 성장해 왔다. 특히 산악지역의 누르, 아바인, 우르, 단기, 토트시, 누바 부족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수단의 기독교인들은 키르클리아와 누바 주변의 산악지대에 피난해 있어 사탕과 의약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 물매들 *



기도가 바뀌어야 할때

윤 성철
(장로, 당회 부서기)

“하 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주리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세리를 소개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하나님이여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
이다”라고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비교해
보이셨다.

우리는 그동안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해왔다.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았다. 나
라 경제가 부흥하니 잘 살게 되어 감사
했다. 개인의 생활도 윤택해지니 여유가
있어 감사했다.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신도수가 늘어나니 감사했고, 교회가 성
장하고 부흥하니 감사생활도 감사했다.
벌사에 감사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요즘엔 갑자기 세상이 온통
뒤집히는 듯 한숨과 탄식만 들린다. 나
라의 지도자가 요즘처럼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린 적도 드물지 않다. 이런 때는
솔직히 “근세는 위로부터 얻는 것”이라

했으니 모든 것을 위에 평개대고 싶을
정도로 곤혹스러웠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가까이 있기를 원했다. 또 위하여 기도
해온 관계가 아니던가.

우리가 선택하는 기도는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기도나 요구
는 실패한다.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된 사울은 이
שראל 자손 중에 더 존수한 자가 없다
는 평가를 받았다. 그가 왕이 된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웃 열국처럼 왕
을 모시고 강력한 국가가 되고 싶었다.
그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
는 행위였다. 당시 사무엘은 “너희가 너
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응답치 아니하시리라”고 경
고하심에(삼상 8장) 결국 하나님과의 통치
를 거부하고 왕에 의한 다스림을 선택하
여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의 결과로 사울
이 왕이 된다. 초기 사울 왕은 여호와의

감동을 받았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왕정을 통치하시고 본분의
섭리를 이루시려 하오나 결국 사울은
실패하고 만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화려한 지도자를 원했던 결과 이스라엘
의 가장 존수했던 사울도 실패로 끝난
것이다.

기도의 동기와 목적은 더욱 중요하다.

“흔들어 채취 주리라” 축복기도에
신도는 교회로 모인다. 신문지상에 각종
축복성경이 광고되고 있다. 심지어 기독교
교절기도 아닌 ‘주식 축복성’, ‘월남
축복기도’도 등장했다. 만물을 담보
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의 의미와
확신을 주지 못한 채 회개의 기도 한번
걸친지 못한 이들에게 형식만 갖추어 세
례를 자작증 주듯 한다. 우리 생활 속에
서 참 하나님의 뜻은 이루지 못한 채 나
만의 삶만을 추구하는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한다.

한때 우리는 우리 교회가 시대적 사
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기
도했다. 한국 교회의 대표적 위치에서,
세계를 향한 교회로서 쓰임받기를 기도
했다. 나라를 대표할 지도자도 선택받았
으니 감사했다. 그러나 열매가 없다. 부
끄럽지만 솔직한 필요가 있다. 교회의

화려했던 지도자의 선택도 실패했다.

이제는 외식적이고 자존심과 우월
감, 교만이 찬 감사의 기도보다 “하늘을
주리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
도”를 해야 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새,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
니함을 감사”하는 독선적인 기도보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
는 죄인 이로소이다”라는 세리의 기도
를 되풀이(눅 18:14)고 하신 예수님의 말
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나라와 교회, 개
인 모두가 회개의 기도를 할 때이다. 그
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이다. 중요
속에 묻혀서 섬림의 위기가 왔을 때 우
리는 깨닫지 못했고 놀라지 않았다. 경
제적 위기가 닥치니 나라도 두려워하고
교회도 놀란다. 이제라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자. 그의 긍휼을 기다리라. 참 교
회는 오직, 성도의 모습을 볼 때이다.

“우리가 마땅히 벌 바를 알지 못하
나 오직 성령이 말한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시느니라”
(롬 8:26)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는 너희의 지
극히 거룩한 법을 위에 자기를 건축하여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 1:20, 21)

주여! 우리의 벌 바를 깨닫게 하옵
소서.

박관영 장로님!

이제는 불리도 대답하실 수 없음을
알면서도 불리기도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이 예배당에서 성탄절예배를 지회
들과 함께 드렸는데 이제는 다시 보
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평소 약하셔서 병
원을 자기집처럼 드나들것에 얼마전
원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다시 나
오셨겠니 생각했는데 이제 이 땅 위
에서는 장로님의 그 인자하신 모습을
영 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슬픈 마음
을 푸려라 형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만나면 이별하는 것이 정한 이치라요
하나 막상 장로님을 보내드려야 하는
장례식장에서의 저급의 심정을 인간적
밀로는 무엇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박 장로님!

그러나 장로님이나 저희들은 예수
님을 구주로 믿고 이 땅 위에서 이미
천국시민권을 갖고 사는 사람들기에
장로님께서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영원
한 하늘나라에 저희들보다 먼저 가실때,
남겨 놓으신 유족과 저희들은 슬픔 가
운대서도 큰 위로와 사랑을 얻게 됩니
다. 장로님은 평소에도 늘 말씀하실 때
면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야. 내
마음은 늘 평안해요.”라고 자신 있게 말
씀하셨지요. 일조를 앞두고 슬퍼하는 자
식들에게도 “나 천국 가는데 슬퍼하지
말라”고 천국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
여 주신 장로님의 마지막 모습은 성도
들이면 누구나 부러워할 진정한 신의
소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장
로님을 영원한 나라로 보내드려야 하는
안타까운 자리임에도 장로님이나 저희
들에게 이런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 주신 우
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며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됩니다.

박 장로님!

장로님의 일생은 한 영혼을 향한 하
나님의 필요하심과 열심이 얼마나 강하
신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젊은 시절 장로님은 형님

◎ 박관영 장로 발인예배에 부쳐 ◎

장로님을 통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차 신득
(장로, 임마누엘한양대장)

과 단신으로 월남하셔서 미8군에서 경
리 담당만으로 은퇴하실 때까지 32년간
외길 인생을 지내오셨습니다. 직업에 걸
맞게 성격도 매우 고지식하고 잔잔해서
시 대하기가 꼭 어려운 분이셨다고 들
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게 되시고 후
와 함께 제24대 장로로 안수받으신 지
14년이 지나는 동안 열에서 모시면서
느낀 장로님께 대한 저의 느낌은 너무
나 유쾌하고 부드러우시고 은혜가 넘치
시는 분이었습니다. 마치 아픔의 만년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건강이 별로 좋지 않으신 가운데 장
로님이 되신 지 얼마 안되었을 무렵, 많
늦은 시간 교회에서 일을 마치시고 귀
가하시던 중 노상 강도를 만나 생명을
잃을 뻔한 정도로 위중한 상태까지 이
르셨던 적이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기적같이 회복되셔서 만 10년간
을 건강하게 부드러우시고 일하시면서
교구장으로, 총원동신 감사로, 유아원 원
장 등으로 수고하시다가 은퇴하셨습니
다. 가정적으로는 예수 한 믿던 친척들
을 다 예수 믿게 했으며 작년에는 막내
인 둘째 딸까지 결혼시키셨고 손자
손녀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유아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벼슬꾼 관사님께서 평생
장로님을 위해 아꼈던 세 가지 기도
제목인 성령의 변화, 건강, 장로되신 것
을 다 응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
를 위하여 오랜 기간 충성하시도록 연

약하신 장로님을 넘치는 은혜 가운데
불들이 주시고, 이제 담에 뒀을 장로님
을 하늘나라로 부르셨음을 깨닫게 됩니
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지금도 살아 계시며 말한 수 없는 사랑
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장로님
은 일생을 통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보
여 주셨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사용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
다.

장로님께서도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 슬픔과 눈물을 다 잊어버
리고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리라 확신합니다. 앞만
성도들을 만가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

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기뻐하
신 장로님을 스관 중에 바라보며 우리
들은 슬퍼하지 않고 장로님과 작별하고
자 합니다.

박 장로님!

장로님이 섬기시고 돌보시던 교회
들에서 사랑하시던 가족들, 존경하시던
김정관 당회장 목사님, 함께 일하시던
교역자님들, 당회원들, 그리고 수많은
교우들과 친지들이 모여 장로님과 아귀
운 작별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장로님
의 믿음의 본과 사랑의 손길을 마음 속
에 깊이 되새기며 장로님이 남겨 놓으
신 일들을 남은 저희들이 이루어도록 노
력하고자 다짐합니다.

믿음으로 귀주시 자녀들과 손자 손
녀들, 그리고 권사님께서는 믿음의 본을
보이신 장로님을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서 훌륭하게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리라 확신
합니다.

박 장로님!

우리도 머지 않아 주님과 함께 길이
안식을 누릴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장로님을 일생 동안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부서탐방 / 탁아부

교육관 208호에 비디오방 설치 예배시간 중 자녀를 맡아주는 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탁아 업무

이번에는 모든 성도들이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탁아부를 탐방하였다. 탁아부실에 들어가면 전 예배 시간에 돌봐 주었던 아이들을 돌려 보내거나 다음 예배 시간에 돌봐 줄 아이들을 반기는 모습들, 그리고 아이들이 잠을 잘 수 있는 방과 놀이 기구가 있는 방, 그리고 아이들이 모두 모여 율동을 배울 수 있는 집회방 모두 3개의 방을 볼 수 있다. '예수님처럼 자라자'라는 표어를 내걸고 있는 탁아부는(부장 조인제 장로, 지도 김영숙 전도사) 0세부터 4세의 아이들이 물론 7, 8살 아이들도 돌보고 있다.

예배가 시작하기 전 아바, 엄마와 함께 이곳에 온 아이는 담당 교사에게 맡겨진다. 교사는 먼저 맡겨진 아이를 안고 기도소를 한 후 좀 큰 아이들은 놀이방에 들어가 놀게 하고 어린 아이들은 대개 교사가 등에 업고 있다. 조금 시간이 흐르면 아이들의 집회 시간이 시작되는데 모두 집회 방에 모여 율동을 배우고 전도사님이 전하시는 교제있는 성경 말씀을 이야기기도 듣게 된다. 이 시간이 끝나면 모두 흩어져 아이들은 선생님과 함께 간식을 먹는다. 이쯤 되면 예배가 끝

난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와 조용했던 탁아부실 밖이 떠들썩해진다.

탁아부가 올해부터 더욱더 확대가 된다고 한다. 탁아부에 성도들이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간이 작년엔 2, 3, 4부 예배때에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2, 3, 4, 5부와 찬양예배 때까지 아이들을 맡아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년 2부와 신혼 가정부 자체에서 운영하던 탁아부를 탁아부가 총괄하여 운영하게 된다고 한다. 앞으로 청년2부, 신혼 가정부의 아이들은 교육관 208호에 설치된 비디오방을 이용할 계획이다.

이같이 폭넓게 아이들을 맡게 된 탁아부는 성경 이야기를 비디오로 보여 주려는 등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부모님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

탁아부에 아이를 처음 맡길 때는 점수를 하고 아이를 담당할 교사의 이름을 기억해 두고 맡기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이것은 한 교사가 한 아이를 맡아 돌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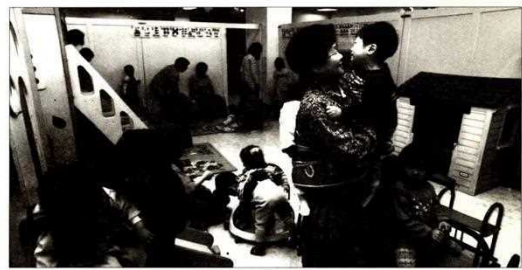
탁아부는 이름 그대로 아이들을 맡아 보는 곳이므로 아이들과 함께 하는 교육을 프로그램은 없지만 아이들을 좀

더 안전하고 아이들의 특성도 고려하며 돌보기 위해 교사들의 발표회나 학부모와 교사들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탁아부에서는 교사로 봉사할 젊은 일꾼들을 찾고 있다. 현재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은 모두 108분인데 이제 아이들을 맡아 돌봐 주어야 할 시간이 늘어선다 더욱더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젊은 아바나 엄마를 대신할 수 있는 젊은 교사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청년2부와 신혼가정부 아이들을 맡아 돌봐 교사는 그 동안 교사로 봉사했던 분들이 앞으로도 봉사해 주었으면 한다고 한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이들의 많은 참여로 올해도 탁아부가 아이들을 안전하게 잘 돌봐요 모든 성도들이 믿고 맡길 수 있게 되어서 앞으로의 모든 예배가 신령하고 진정하게 드려졌으면 한다.

(글/박주영 기자, 사진/이운구 기자)



토막소식

오늘 찬양예배시 97년도 전도사상

전도위원회에서는 오늘 찬양예배시, 작년 한해 동안 영혼을 건지는 열심을 품고 복음을 전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가행한다. 이 시상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상급의 그림자라고 생각할 때, 수상하는 성도들뿐 아니라, 총회의 모든 성도들은 특별한 감격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전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시상식이 영혼을 건지는 열심으로 가득찬 총회의 성도들이 사랑에서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수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1등: 이진규 전사(20명) / 2등: 신상수 안수집사, 박재민 성도(2과 10명) / 3등: 한정희 권사, 홍현희 성도(7명) / 4등: 안윤진 집사, 양신자 집사, 이은옥 집사, 조영혜 집사(6명) / 5등: 박인진 장로, 엄경자 권사, 유옥자 성도(5명).

중등2부 신입생 환영회

중등2부에서는 지난 1월 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영아부실에서 신입생환영

회를 실시하였다. 이 환영회는 중등1부에서 올라온 전입생들에게 중등2부를 소개하고 찬송과 말씀, 기도회를 통하여 환영회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중등2부에서는 이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회의 기둥들로 자라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청년1부 수련회

청년1부에서는 오는 1월 16일과 17일 이틀동안 총회기도원에서 수련회를 실시한다. '예수의 사역에 동참하는 한국 청년 기독교인'이라는 주제 아래 김필수 목사, 허용구 전도사, 송원석 전도사를 강사로 하여 회원들의 영성 훈련에 중점을 두어 진행될 예정이다.

청년2부 전입생 1일수련회

청년2부에서는 지난 1월 8일 오후 7시부터 약 3시간 동안 교육관 212호에서 전입생들을 위한 1일 수련회를 가졌다. 청년1부와 신혼가정부에서 새로 올라온 회원과 새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수련회는 기도회, 면회와 지역 소개, 전입생 소개 및 청년2부내의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청년2부에서는 새로운 회원들이 청년2부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더욱 성장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청년2부 전체 수련회는 1월 19, 20일 오후 7시 배다니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새해 첫주에 나눈 그리스도의 성찬

총 9,897명이 수찬

지난 새해 첫주일에 거행된 성찬식을 통하여 총회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

스도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새해를 여는 기쁨에 거할 수 있었다. 총 9,897명의 성도들이 수찬한 일일 성찬식은 올해 안으로 거행될 여섯번의 성찬식 중 첫번째, 치르어진 것으로 시종 거룩한 감동 속에서 진행되었다.

1월은 모습을 위한 기도의 달 청년1부기도 제목나누며 집중기도

청년1부에서는 1월 한달 동안을 모슬렘(이슬람교도)을 위한 기도의 달로 정하고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일일 기도 제목을 정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번 기도 운동은 모슬렘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급식기도하며 경전을 낭독하는 라마단 기간에 맞추어 전개하는 것이다. 총회의 성도들도 모슬렘의 복음화를 위하여 함께 이 기도 운동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

소년부 교사 특강

소년부에서는 오늘 오후 1시부터 교사실에서 '성령과 교사'에 대한 특강을 실시한다. 강사는 한승일 전도사. 98년도 교육의 주제를 성령으로 정한 소년부가 교사들이 먼저 성령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다.

교회학교 교사특별회의 1월중 실시

교회학교의 각 부서는 매년 1월 중에 교사특별회의를 통해서 1년동안의 각 부서의 교육계획 및 사업계획 등을

확정, 발표하여 한해를 준비하게 된다. 이달에도 예외없이 교회학교 모든 부서들이 이 특별회의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기도하는 교사들뿐 아니라, 자녀들을 교회학교에 보내는 모든 총회의 성도들도 1998년도 교회학교가 말씀 안에서 진정한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로 동참해야 하겠다.

1월 6일 오전 8시 30분 1998년도 시무식



1월 6일 오전 8시 30분. 선교관 국제회의실에서 1998년도 시무식이 있었다. 전 교역자와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김경관 담임목사는 창세기 18장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 뜻을 알리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향한 마음 중보자의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해 가자"고 당부하였다.

새가족 환영회

오늘 오전 10시 30분. 갈릴릴홀에서 새가족환영회가 있었다.

대상은 97년 10월 5일부터 98년 1월 4일까지 등록한 새신자입니다.

전도위, 회계감사

97년도 하반기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던 지회는 1월 중으로 전도회실(선교관 405호)로 오셔서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위원회 -

1998년 교회 일정표

· 예배위원회

행사명	일시	요일	협력부서	비고
1. 신년예배	1/1	월	당회	
2. 종려주일	4/5	주		
3. 고난주간	4/5-11		당회	전 교인 금식일
4. 부활절	4/12	주	찬양회	
5. 어린이주일	5/3	주	교육위·찬양회	
6. 어버이주일	5/10	주	교육위·찬양회	
7. 성령강림주일	5/17	주		
8. 맥추감사절	7/5	주	교육위·찬양회	
9. 교회성립주일	9/6	주	당회	
10. 종교개혁주일	10/25	주		
11. 추수감사절	11/15	주	교육위·찬양회	
12. 성탄절	12/25	금	교육위·찬양회	
13. 세례문답 및 교육		주	당회	제1,2주일 오후 3시
14. 세례식				
제1차 세례식	2/15	주	당회	
제2차 세례식	5/17	주	당회	
제3차 세례식	8/16	주	당회	
제4차 세례식	11/15	주	당회	
15. 성찬식				
제1차 성찬식	1/4	주	당회	
제2차 성찬식	3/1	주	당회	
제3차 성찬식	5/3	주	당회	
제4차 성찬식	7/5	주	당회	
제5차 성찬식	9/6	주	당회	
제6차 성찬식	11/1	주	당회	

· 찬양위원회

행사명	일시	요일	협력부서	비고
1. 절기음악예배	4/12, 7/5		예배회	무용전격추진/교회합일추진사업
2. 메시아 합창	12/25	금	성탄절	
3. 지휘자·반주자 훈련	3/9	주	교육위	교회합일추진사업

· 교육위원회

행사명	일시	요일	협력부서	비고
1. 겨울성경학교 및 수련회	1/2-7		충현기도원	
2.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7/8-12		충현기도원	

· 전도위원회

행사명	일시	요일	협력부서	비고
1. 충현전도학교 개설	1/6-9/12			영성훈련 및 전도의 실제
2. 임직원양성훈련	1/6-9/12			영성훈련, 영성전도, 임직원 양성훈련
3. 여름 전도대 파송	7/8-12			
4. 동여촌교회 지원	1/12-12/12			
5. 연합회별 전도운동	1/12-12/12			매주 월요일 8시

· 선교위원회

행사명	일시	요일	협력부서	비고
1. 선교주일	1/18	주	교육위·교구위	
2. 단기선교	8/9, 12			
3. 선교훈련	3/11-12/12		토	선교연구원교육훈련

· 봉사위원회

행사명	일시	요일	협력부서	비고
1. 제1차 헌일	5/3	주	전도회	
2. 제2차 헌일	10/3	주	전도회	
3. 절기 구제	10/12		교구위	

· 인사위원회

행사명	일시	요일	협력부서	비고
1. 제1회 정기집회 신발 및 임명	12/6	주	교구위	
2. 위원회 봉사자 선별 및 임명	12/13	주	각 위원회	
3. 퇴임 및 근무자 시상식	12/27	주	행정처	

· 기획위원회

행사명	일시	요일	협력부서	비고
1. 교회요람 발간	1/1			
2. 교역자 수련회	4/10	주	당회	
3. 강요(원로·사무)수련회	2/9			

· 교구위원회

행사명	일시	요일	협력부서	비고
1. 경로심방	1/1-2/1			
2. 교구영성훈련		토	행정처(가도관)	

· 건축위원회

행사명	일시	요일	협력부서	비고
1. 제2교육관 증축				
2. 공헌 부지 대토				
3. 복지관 건축				

· 성경연구회

행사명	일시	요일	협력부서	비고
1. 창세기훈련	2/2-5	월-목	당회	전교인영성훈련장사: Longman, P. Enns, G. Fuller 박사(베스트리치신학연구소)
2. 주간성경공부			당회	
제1학기	3/2-6/27			
제2학기	9/1-12/19			
3. 찬양대원양성부	3/2-6/27		찬양회	
제1학기	9/1-12/19			
4. 교사양성부			교육위	
제48기(전반기)	3/2-6/27			
제49기(후반기)	9/1-12/19			
5. 교사단기수련회			교육위	
6. 구역강훈련	3/6-9/12	수	교구위	매주 수요일

· 도서관학회

행사명	일시	요일	협력부서	비고
1. 상반기 장학금 지급	2/22	주	교육위	
2. 하반기 장학금 지급	8/30	주	교육위	
3. 장학재단 설립			당회	충현교회학대관 설립

· 출판국

행사명	일시	요일	협력부서	비고
1. 주간충현/주보 제작	매주	주	기획실	
2. 격주간충현(영문) 제작	격주	주	기획실	
3. 충현의나나 제작	매월	주	교역자	
4. 교회요람 제작	1월중		기획실	
5. 교회 규정집 제작			기획실	

· 충현기도원

행사명	일시	요일	협력부서	비고
1. 교구영성훈련	매주	토, 목	교구위	

· 공동의회 및 총회

행사명	일시	요일	협력부서	비고
1. 공동의회(제1차)	1/4	주		1997년도 결산 및 1998년도 예산 제출
2. 정기당회	매월	수	당회서기	제출 서류 주요일
3. 제직회	매 3개월	주	당회 후 주요일	
4. 특별 제직회	12/27	주	당회	1998년도 결산 및 1999년도 예산 심의
5. 총회(각 위원회, 찬양대, 교사, 교구위원)	11/1-12/1			

1월 18일 예배 전 찬양곡목 및 연주자

◆ 2부예배

바리튼 서준성

- (오르간 백금옥)
- 총신대학교 교회음악과 졸업
- 독일 에센폴크방크립음대 졸업(성악과)
- 오라토리오 메시아, 천지창조, 장엄미사, C장조 미사 솔로리스트
- 한국 슈베르트협회 회원
- 한국 기독교음악신학원 출강
- 가브리엘찬양대 솔로리스트
- (찬양곡목)
- 생명의 양식
- 오 신실하신 주(찬 447장)
- 아 하나님의 은혜로(찬 410장)
- 서로 사랑하자
- 주 날게 될 내가 평안히 쉬네(찬 478장)



◆ 3부예배

트럼펫 안희찬

- (오르간 조희영)
-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 영남대, 경북대, 중앙대, 이대, 경원대 출강
- 추계예대 교수
- 한국페스티벌발양상을 단원
- 할렐루야오케스트라 단원
- (찬양곡목)
- 나 어느날 꿈 속에서 해매며(찬 84장)
- 순례자의 길
- 나팔 불어라
- 서로 사랑하라
- 여호와와 나의 목자



◆ 4부예배

소프라노 박경희

- (오르간 김남옥)
-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 Salzburg Mozarteum Sommer Akademie 수료
- 서울시 교육위원회 주최 성악콩쿠르 1위 입상
- 오라토리오 메시아, 천지창조, 오페라 라보엠, 돈 지오반니 등 독창
- 신촌음악회 등 다수 출연
- 성가 독창 모음 테이프 1집 제작
- 충현교육대학교 출강
- 할렐루야찬양대 솔로리스트
- (찬양곡목)
- 기도
- 이 세상의 친구들(찬 449장)
- 어둔 밤 마음에 잠겨(찬 261장)
- 다시 사신 구세주(찬 151장)



직원모집

1. 자격
30세 전후의 세례를 받은 남자로
PC 사용이 가능한 자
2. 직종
① 사무직 ② 방송기사
3. 제출서류
1) 자필이력서(사진 포함)
2) 주민등록등본
3) 타교인은 당회장 추천서
(기타 서류는 채용 후 제출)
4. 문의 : 충현교회 사무국(552-8200 교화 402)

